

### 히말라야 실종 대만인 47일만에 구조

네팔 히말라야 등반 도중 연락이 끊긴 대만인 량성웨(21)가 실종 47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고 AP·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안타깝게도 동행했던 여자친구 류천춘(19)은 구조의 손길이 닿기 사흘 전 눈을 감았다. 대학생인 이들은 지난 3월 히말라야 산맥의 한 봉우리인 가네시히말 산을 오르다 눈보라에 길을 잃고 말았다. 구조작업에 참가한 현지 등반업체 관계자는 “이들이 동굴 같이 생긴 곳에 갇히는 바람에 위로 올라오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네팔 경찰은 전문 가이드와 헬리콥터를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강설과 눈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사이 두 사람은 배낭에 쟁겨온 김치와 국수 등을 조금씩 꺼내먹으며 약 2주를 지냈다. 나중에는 식량이 다 떨어져 물과 소금만으로 버텼다. 류천춘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량성웨는 홀로 시신 곁에서 3일을 더 보내다 구조대에 발견됐다. 당시 량성웨는 평소 체중에서 약 30kg가 빠진 상태였으며 머리에 이가, 오른쪽 다리에 구더기가 득실했다. 구조대는 량성웨를 헬리콥터에 실어 카트만두 도심 병원으로 옮겼다. 현재는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다. /연합뉴스



네팔 히말라야 등반 도중 연락이 끊긴 대만인 량성웨(21)가 실종 47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고 AP·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안타깝게도 동행했던 여자친구 류천춘(19)은 구조의 손길이 닿기 사흘 전 눈을 감았다.. 대학생인 이들은 지난 3월 히말라야 산맥의 한 봉우리인 가네시히말 산을 오르다 눈보라에 길을 잃고 말았다. 구조작업에 참가한 현지 등반업체 관계자는 “이들이 동굴 같이 생긴 곳에 갇히는 바람에 위로 올라오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네팔 경찰은 전문 가이드와 헬리콥터를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강설과 눈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사이 두 사람은 배낭에 쟁겨온 김치와 국수 등을 조금씩 꺼내먹으며 약 2주를 지냈다. 나중에는 식량이 다 떨어져 물과 소금만으로 버텼다. 류천춘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량성웨는 홀로 시신 곁에서 3일을 더 보내다 구조대에 발견됐다. 당시 량성웨는 평소 체중에서 약 30kg가 빠진 상태였으며 머리에 이가, 오른쪽 다리에 구더기가 득실했다. 구조대는 량성웨를 헬리콥터에 실어 카트만두 도심 병원으로 옮겼다. 현재는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다. /연합뉴스

### 김건모 어머니 이선미씨 등 '예술가 장한 어머니상'

올해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수상자로 가수 김건모의 어머니 이선미(73)씨와 요절한 바이올리니스트 고 권혁주의 어머니 이춘영(59)씨 등 7명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17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시상식을 열었다. 수상자는 이선미씨와 이춘영씨 외에 시인 박성우의 어머니 김정자씨, 설치미술가 김승영의 어머니 박흥순씨, 국악인 방수미의 어머니 구현자씨, 연극연출가 김태수의 어머니 조윤나씨, 발레무용가 황혜민의 어머니 김순란씨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산재보험 토크 콘서트'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인규)는 창립 22주년을 맞아 27일 전남대에서 근로관계법 등 '산재보험 토크 콘서트'와 공단 채용설명회를 진행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제공>

### 남구봉사센터·을로운수 봉사회 봄나들이 행사



광주남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경호)와 광주을로운수 사랑봉사회(회장 이병철)는 최근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충남 태안 '세계튤립꽃 축제장'을 방문, '봄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남구자원봉사센터 제공>

# “주변 상인·시민과 상생...새 축제문화 만들고 싶어”

## 뻘한 축제는 싫다... '정유년계모임-광주치맥축제' 연 지역 대학생들

### 조선대서 치킨·맥주 소재로 개최

### 청년 7개팀 초청해 버스킹 공연

### 가을에도 열어 지역축제 만들 터

뻘한 게 싫었다. 새로운 축제문화에 갈증을 느꼈다. 그래서 저질렀다. 광주지역 대학생들이 모여 치킨과 맥주를 소재로 축제를 개최했다. 지난 26일 조선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정유년계모임-광주치맥축제'다. 축제에 조선대 1·8극장과 서석을 일대에서 진행됐다. 축제에 참가한 청춘들은 각자 손목에 치킨 교환권 팔찌를 차고, 잔디밭에 돛자리를 깔고 앉아 '치맥'을 즐겼다. SNS 홍보 덕분에 인기 사천 참가신청자만 200명을 넘어섰고, 현장 신청자도 길게 줄을 섰다. 치킨 외에도 푸드트럭에서 소시지 등 맥주와 즐길 수 있는 안주를 판매했고, 커다란 스크린에 기아타이거즈 야구경기도 생중계하면서 완벽한 '치맥 궁합'을 이뤘다. 특히, 버스킹 공연무대가 돋보였다. '아직은 실력이 부족해서', '조청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황인홍 위원장

등 무대에 서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던 '청년 아티스트' 7팀을 초청해 무대에 올랐다. 지난 2월부터 '광주치맥축제'를 기획한 '정유년계모임 추진위원회'는 지역 대학생 9명으로 구성됐다. 황인홍(25·조선대 전자공학과 4년)씨를 위원장으로, 김석진·이신성(23· 2년), 안희철(24· 4년), 박가현(여·20· 1년), 김혜원(여·23· 2학과 4년), 강요람(여·22· 2학과 3년), 전누리(여·21·남부대 경호학과 2년), 안재연(21· 경찰행정학과 2년)씨 등이다. "어느 대학축제든 주막과 초정가수 무대 등 뻘해. 대학축제 때 오히려 주변 상가들은 장사가 안돼 늘 안타까웠습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변 상인과 시민들까지 모두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 의견을 모았죠." (안희철) 이들은 조선대 인근 치킨전문점 4곳과 협약을 맺고 축제에 소요되는 모든 치킨을 여기서 구매했다.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



지난 26일 조선대에서 열린 '정유년계모임-광주치맥축제' 참가자들이 치킨과 맥주를 먹고 있다.

고 싶어서다. 아무래도 행사를 기획·진행한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축제다 보니 '어설플 구석'이 많았다. 박가현씨는 "나름 준비를 한다고 노력했는데 경험이 없는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준비한 친구들 모두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처음 축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술 마시는 축제'라는 부정적인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광주에서도 '치맥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양동시장과 전남대 후문에서 치맥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대구처럼 성공을 거두지 못해 안타까웠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정유년계모임 추진위원회는 '광주치맥축제'를 일회성으로 끝낼 생각이 없다. 지역 축제의 하나로, 청년들이 만드는 하나의 축제문화로 자리 잡을 때까지 꾸준히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9월 9일, 이른바 치킨을 먹는 '구구데이'가 바로 그날이다. 황인홍씨는 "우리가 만드는 축제를 계기로 문화도시 광주답게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졌으면 한다"며 "2회 광주치맥축제는 더 알차게 꾸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 기아차 광주공장 '챌린지 콘서트' 발대식 ... 1억6000만원 후원

기아차 광주공장(공장장 정찬민)이 지난 26일 '2017 기아 챌린지 콘서트'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후원에 나섰다. <사진> 기아 챌린지 콘서트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공연 관람 기회가 부족했던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행위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 중 재능이

있는 문화예술 꿈나무를 육성하는 '문화예술교실'로 구성된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날 광주시 남구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박승원 광주지원사업담당과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총 1억6000만원의 후원금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서부경찰, 영화 주인공 복장 '교통반칙근절' 이색캠페인

광주서부경찰이 유명 영화의 주인공 복장을 하고 캠페인을 벌였다. 광주서부경찰은 27일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앞 광장에서 음주·난폭·보복 및 압제 운전 등 3대 교통반칙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 경찰은 지난 2월 광주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2월(11명)보다 9명 많은 20명으로 집계

되자 캐릭터 조형물을 이용해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나섰다. 경찰관들은 영화 주인공 복장을 입고 캠페인을 벌이던 시민들에게 친근한 인상을 주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김기동 신양파크호텔 사장 신지식인 경영혁신대상

김기동(사진) 광주 신양파크호텔 사장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반기 신지식인 인증식 및 우수 신지식인에 대한 시상식에서 경영혁신대상상을 받았다. (사)세계신지식인협회(회장 송명익)는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일하

는 방식을 개선·혁신해 해당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를 신지식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김 사장은 관광호텔업에 30여년 넘게 종사하면서 광주관광협회와 광주컨벤션뷰로 호텔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호남지역 호텔엔지니어협의회 회장과 재광 고창군민회장을 맡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영화 '양들의 침묵' 만든 조나단 드미 감독 별세

영화 '양들의 침묵'과 '필라델피아'를 만든 조나단 드미 감독이 26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73세. 1944년 뉴욕의 롱아일랜드에서 태어난 드미 감독은 1970년대 B급 영화의 거장인 로저 코먼 아래에서 영화제작에 뛰어들었다. /연합뉴스

출세작은 1991년 앤서니 홉킨스와 조디 포스터가 출연한 '양들의 침묵'이었다. 이 영화로 드미 감독은 이듬해 열린 제64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최고 감독상을 받았다. 1993년에는 '필라델피아'를 제작했다. 이 영화는 톰 크루스에게 아카데미상 최고 배우상을 안겼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 학숙

▲박진상·최덕희씨 장남 창훈군 이승암(광립토건·동성종합건설·광림종합중기 회장)·정문숙씨 삼녀 보현양=30일(일) 낮 12시30분 울산시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울산 2층 크리스탈볼룸. ▲김종근(전 일동중학교 교사)·박항순씨 차남 대성군 최서규·박복임씨 막내 경화양=30일(일) 오전 11시 50분 광주시 서구 상무리초 컨벤션웨딩홀 2층 데이지홀, 062-374-8181. ▲김종환·유수옥씨 아들 주영군 배정수(전 나주시 지적계장)·나연님씨 딸 지애양=5월 13일(토) 낮 1시 광주시 서구 NS워딩컨벤션(구 상록웨딩홀) 3층 베리체홀, 010-8594-7012.

### 등문회

▲제1회 영광 군남초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이성래) 화합한마당=30일(일) 오전 10시 30분 군남초등학교 운동장 문의 신현준 010-4605-7530.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강열) 월례회=5월 5일(금) 오후 6시 30분 광주시 동구 화랑궁회관 062-224-1800.

### 종친회

▲경주김씨 광주·전남종친회 청년회 가족한마당=29일(토) 오전 11시 광주시 남구 압촌동 구산수목원 문의 부회장 김용기 010-8857-6616.

###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 북구중독관리센터 여성주간재활프로그램=음주유혹대처 및 단주법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3시 북구중독관리센터 4층 교육실 062-526-3370.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지원센터 062-351-3029.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광주서구중독관리센터 열린마음상담센터 무료상담=서구지역 중독 및 정신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상담 금호복지관 062-383-0205, 쌍촌복지관 062-373-0207, 쌍촌시영복지관

062-373-0203.

▲최창렬 전설음악교수 강좌=색소폰, 기타, 재즈 피아노 등 무료강의(초보학생),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평생교육원, 매주 일요일 오후 2시~4시 강의. 문의 010-4617-6078.

###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반 5시30분~7시30분. 011-618-7882.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님용 독방 및 침구제공, 아침 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 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대학생 봉사단=자원봉사 상설체...

홍보, 손발맛사지,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지원, 공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광주지역 거주 대학생.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외국어전문봉사단=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통역 봉사활동으로 외국인 과 회화가 가능한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시자원봉

사센터 062-613-5584.

▲심재계가 장기요양기관 회원=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령, 노인성 질환(치매·중증·노환), 정소, 취사,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차량목욕),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201호 故박병주님(남/67세)		301호 故김옥례님(여/85세)	
子/子婦: 박상연/양연아	子/子婦: 양경택/서유미	女/婿: 박은이/서광범	子/子婦: 정갑진/김애신, 선금/김미경
未亡人: 노종만	未亡人: 노종만	未亡人: 노종만	女: 정준자
장 지: 화순 현천면 선영	장 지: 화순 현천면 선영	장 지: 화순 현천면 선영	장 지: 정요란, 한나, 은강, 다은, 하니
연락처: 227-4381	연락처: 227-4381	연락처: 227-4382	연락처: 227-4383
401호 故김종희님(남/90세)		402호 故김상순님(여/90세)	
子/子婦: 김성열/최혜옥, 성진/박영애, 성수/설희라	子/子婦: 정갑진/김애신, 선금/김미경	女/婿: 김태환, 태운, 태균, 혜숙, 혜원, 혜주, 태우	女: 정준자
未亡人: 만철, 성주	未亡人: 만철, 성주	未亡인: 만철, 성주	장 지: 정요란, 한나, 은강, 다은, 하니
장 지: 화순군 옥천면선영	장 지: 화순군 옥천면선영	장 지: 화순군 옥천면선영	연락처: 227-4383
연락처: 227-4383	연락처: 227-4383	연락처: 227-4383	

**함께한 10년, 함께할 100년**  
**금호장례식장** 062-227-4000  
www.mykumho.com  
대표이사 구제길